

##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공기업 유치…30년후 곡성 미래 준비”

민선 6기 2년 설계

유근기 곡성군수

유근기 곡성군수는 지난 1년간 군정 성과로 군랜드 마크인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관광의 밤’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전국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한 것을 꼽았다. 실제로 1004종의 장미가 꽃물결을 이룬 기차마을 장미공원에서 열린 ‘곡성 세계장미축제’(5월 22~31일) 하루 관광객 수가 군 전체 인구보다 많아 타 지자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군은 최근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곡성은 최고 등급인 ‘SA’에 선정됐다.

또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올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효도택시’는 지난 5월 말까지 총 396회에 9005명(하루 평균 60여명)이 이용해 전국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곡성



중소농 위주 농업 틀 바꿔 소득증대  
섬진강 기차마을 콘텐츠 대폭 강화  
행복택시 이어 ‘1000원 버스’ 운행

관내 어디든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1000원 버스제’를 시행한다.

유 군수는 “굴뚝없는 산업”이라 일컫는 관광은 앞으로도 농업과 더불어 곡성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섬진강 기차마을은 ‘요술랜드 체험관’과 ‘4D영사관’ 개장에 이어 다양한 콘텐츠와 부대시설을 보강해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섬진강 동화나라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해 가족 테마형 관광지인 기차마을과 곡성을 시가지를 연계할 구상이다.

유 군수는 “섬진강과 대왕강 합류지점인 압록 권역을 관광명소화 하고, 대왕강에 출렁다리를 설

치해 곡성과 압록권에 이어 석곡면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수변 관광벨트를 조성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1박2일, 2박3일의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할 생각”이라며 “그렇게 되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지역상권 활력 회복으로 주민소득이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농업분야의 경우 상업농에서 중·소농 위주로 농업의 틀을 바꿔 농업인들의 고령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한 ‘50대 농정 핵심시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고 있다. 농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개관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귀농·귀촌인 189세대 310명이 전입해 올해 목표했던 3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군은 지난해 복지행정 전달체계 개편 노력부문 대상을 수상한 복지분야에서도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한국마사회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지역 복지사업 공모에 선정돼 5000여만 원과 다문화가정 농경문화 역사교육 1억원의 복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사업기반이 탄탄한 중견 이상의 공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예너지 관련 공기업 2개사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사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 군수는 ““주식회사 곡성”의 대표 영업사원으로 맨 처음 했던 일이 세일즈 행정이었다며 “5월 까지 19회에 걸쳐 전남도는 물론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부지런히 발품을 판 결과 45건 291억원이 올해 본 예산에 반영됐고, 35건의 공모사업에 22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정책개발팀을 활용해 정부정책을 지역별·사업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나 해당기관의 당사자들을 만나 개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전념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근기 군수는 “임기 중의 성과에 얽매어기보다는 20년, 30년 후 내 고향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군정을 이끌어 군민이 행복하고 사람이 모여드는 ‘희망 곡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 7개 시·군 단체장 지리산권 공동발전 뭉쳤다

지리산 한바퀴 관광순환버스 운영

특산물 공동판매장 등 협약 체결

지리산을 둘러싼 전남·전북·경남의 기초자치단체들이 함께 지리산 둘레길의 관광격을 유지하고 농·특산물 매장을 운영하는 등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

유근기 곡성군수, 서기동 구례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등 7개 시·군 단체장들은 지난 21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지리산권 공동발전 협력을 위한 내용의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7개 시·군 단체장들은 지리산권 공동 발전을 위해 ▲지리산권 관광순환버스 구축



▲“지리산 둘레길” 및 순환관광로 편의위주 소프트웨어 강화 ▲지역관광 및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소프트웨어 강화 ▲지리산권 문화 및 통합 축제박람회 개최 등 4대 소프트웨어 전략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우선 22개의 지리산 둘레길을 도는 ‘지리산 한바퀴 순환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버스는 둘레길의 주요 거점을 순회하게 돼 관광객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둘레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대책도 공동으로 마

련한다.

또한 자치단체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도 공동으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시·군은 각 지역의 축제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 자치단체가 축제를 열면 나머지 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공연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으로 하여금 시행 세부연구용역 실행 후 결과물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협력증진과 조합 조직의 기능강화, 지리산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인 지원, 지리산권 통합 연계관광 소프트웨어 강화사업 지원 등의 3대 지리산 권역 공동 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구례=이성구기자 lsg@

/남원=정규섭기자 jgs@



## 구례군 매천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호응

‘지리산 둘레길...’ 주제  
25일 2차 강연·탐방

구례군 매천도서관이 ‘지리산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매천도서관은 1차로 지난 18일 오치근 그림책 작가와 함께 ‘섬진강 그림여행’을 진행한 데 이어 25일 ‘지리산 둘레길 생명평화의 삶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2차 강연과 탐방을 진행한다. 탐방코스는 이순신 백의종군로(구례 밤재)~편

백숲~산수유 시목지 등이다.

이어 8월 22일에는 ‘우리 풍류의 길’이, 9월 12일에는 ‘숲길에서 구례를 만나다’가 운영된다. 마지막인 5차 행사는 그동안의 주제에 따른 스토리를 사진으로 엮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마련된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문화에 관한 강연과 현장탐방을 병행하면서 참가자들이 인문학에 쉽게 다가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참가문의(061-780-2660)

/구례=이성구기자 lsg@

## 곡성군 맞춤형 생계급여 대상자 발굴 전국 1위

곡성군이 맞춤형 급여 신규 신청자 발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곡성군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도입에 맞춰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규 생계 급여 대상자 31명과 신규 주거급여 대상자 116명을 발굴해 지난 20일부터

매달 675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이로써 곡성군의 생계급여 수혜자는 맞춤형 복지 시행 전인 지난달 820명에서 이달 851명으로 31명 늘었고(전월 대비 3.7% 증가), 주거급여 수혜자는 793명에서 909명으로 116명이 증가(전월 대비 14.6%

증가)했다.

지급여 기준으로는 복지 혜택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는 3700만 원가량이 추가돼 2억4394만 원(전월 대비 18% 증가)이 됐고, 주거급여는 2900만 원가량이 증가돼 7300만 원(전월 대비 68% 증가)에 이르게 됐다.

이로써 맞춤형 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719명으로 정부가 기존 복지 수혜자수를

기준으로 정한 신규 발굴 목표치(684명)를 105% 초과 달성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는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탈락시키던 단순 방법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 오픈기념 100구좌 한정판매상품 마감임박!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SG에스골프는 부킹몰(주)에서 31일부터는 예약0원,골프장가는 무료입니다

####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광주지사)

## 062) 415 - 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MALL GB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T MALLS C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텔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